

여는 글 1면
수다쟁이 책마녀가 들려주는 책나라 이야기 2·3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책 읽기 3면

영어나라 이야기, 수학나라 이야기 4면
요리나라 이야기 5면
내 마음을 전하는 우체통 5면

우리 동네 옛 이야기 5면
신나는 글나라 놀이터 6·7면
내가 만드는 그림책 8면

책마녀의 괴짜 독서 골든벨 8면
도서관에 놀러와 8면

장유어린이신문

फल 꽃

은효가 이제 글을 읽는데요.
'양'을 보고 '아빠'의 '아'가 있다고 말한 지 몇 달 만에,
아장아장 걸어 도서관에 온 지 몇 년 만에,
특별히 배우지 않았어도 그렇게 열심히엄마 품에서 그림책을 보더니,
네 돌이 안 되어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양갈래 머리를 앙증맞게 묶고, 울룩불룩 거북이 등 같은 기저귀 가방을 메고서 유아실에 걸어오던 모습울요.
푹신푹신했던 빨간 모자 책을 좋아해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엄마한테 읽어 달라 하기도 했고,
어떤 휴일엔 온 가족이 함께 거울을 주제로 하는 책놀이 프로그램에서 빨간 양념 무쳐가며 감장감치를 담가보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책 읽는 재미보다 고만한 또래 친구를 만난 기쁨에 함박웃음을 짓기도 했죠.

사실은 추상화보다 더 난해(?)했던 크리스마스 그림 카드도,
도서관이 은효에게 어린이집이라고 스승의 날에 건네었던 그림 엽서도,
모두 소중한 따뜻한 기억입니다.

늘 의젓한 언니와 함께 있는 걸 볼 때면,
평생 막내일 줄만 알았던 은효에게 은효를 꼭 닮은 동생이 생겼습니다.

질투 섞인 투정을 하는 것도,
더 많은 관심을 바라는 듯한 시선도,
모두 은효가 자라는 과정이었지요.

이제껏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은효에게 도서관이 집이자 놀이터이자 학교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도서관이 늘 휴식이자 즐거움이자 배움일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합니다.

가깝게 다가오는 봄의 기운을 맞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도서관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여러분도 새 봄을 도서관에서 함께 맞이할까요?





수다쟁이 책마녀가 들려주는 책나라 이야기

친구들 안녕! 너무 오랜만이라 날 까먹었지? 사실 마녀는 그냥 먹는 게 좋아. 까서 먹으면 썩은 개구리 똥다리 맛이 나거든. 여기저기서 “우웩” 하는 소리가 나는 걸 보니 이제야 내가 누군지 기억하는구나. 그래, 나 책마녀야. 겨울 내내 응크리고 있었더니 짐직일 때마다 뼈 부딪치는 소리가 우두둑 난다. 너희들도 지난겨울에 선행학습에 매달려 학원에 응크리고 있었지? 게구 불쌍한 녀석들. 어서 준비 운동하고 내 마법 빗자루에 올라타. 너희들 풍구멍에 신바람 날리게 해 줄게. 이번 4월엔 “친구”에 관련된 이야기 속이다. 자 출발.

새 학기라서 교실이란 친구, 선생님까지 모두 새 것으로 바꿨지? 바뀌고 나니까 맘에 드는 것도 있고 시원찮은 점도 있을 테고 말야. 나도 이참에 새 마녀 옷으로 싹 바꿔 볼까나.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너희들에게 물을 게 있다. 새 친구 사귀는 일은 잘 되어가니? 활발하고 적극적인 친구가 맘에 든다고? 그래 그 애랑 사귀고 싶은데 선택 말을 못 걸고 있는 건 아니니? 너무 딱딱한 척해서 밥맛이라고? 그래 친구 사귀는 일이 쉬운 녀석도 있을 거고 어려워서 진땀 빼는 녀석도 있을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데리고 여기에 온 거야. 고맙지. 많이 고마우면 귀 기울이고 잘 들어봐.



1. 『외톨이 사자는 친구가 없대요』, 나카노 히로카즈 글 · 그림, 한림출판사

너무 외로운 사자가 친구를 찾아 나섰다. 맨 처음 고슴도치를 만난 사자 반기운 마음에, 빨리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자기 모습을 고슴도치처럼 꾸미고, 사자나름 새 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한 거지. 하지만 사자도 아니고 고슴도치도 아닌 이상한 것을 본 고슴도치는 기겁을 하고 도망치는 거라. 그래도 이 불쌍한 사자는 다른 동물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모습을 그 친구와 비슷하게 만들려고 온갖 애를 다 쓴다. 사자의 노력에 감동한 동물들이 친구가 되어줄까? 아니면 친구도 못 사귀고 자신의 진짜 모습까지도 까먹어버릴까? 궁금하지? 그럼 읽어봐라. ★ 책마녀의 과잉친절 : 『헛쟁이 사자 댄디 라이언』(소년한길도) 한번 읽어보지 않을래?



2. 『행복한 의자 나무』, 랑 슈린 글 · 그림, BB아일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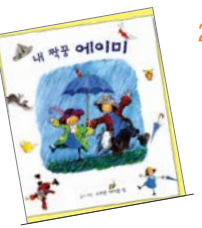
에이트라는 거인의 정원에 책 마녀만큼이나 제멋대로고 자기밖에 모르는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 그 나무는 잘난 척 하나라 목만 길어진 모습에다가 새소리도 시끄럽고 나비도 꿀벌도 귀찮고, 기어오르려는 개구쟁이들은 더더욱 싫어했어. 우째 내 성격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럽네. 여하튼 이 성격 이상한 나무는 외톨이겠지. 하지만 거인 에이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나무가 변하기 시작해. 마법 지팡이 들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외치는 신데렐라 변신술도 아닌 것이 기가 차게 바뀌는 거야. 힘들어도 참을 수 있게 되고 새와 주위의 동물들을 위해 주는 마음도 생기고. 이런 마법은 나도 좀 어려운 건데 말야. 거인 에이트에게 이 마법 전수 받으면 너희들한테 맨 먼저 선사하마. 뭐 너희들은 벌써 그 마법을 안다고? 이런 내가 한 발 늦었구나. 흑흑 좌절한 책마녀.

이렇게 여러 책 속을 돌아다니다 보면 무조건 친구의 기분에 맞추려고 애쓰는 아이도 있고 너무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는 아이도 있어. 하지만 진짜 친구를 만나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것 같아. 그런데 친구를 잘 사귀는 아이를 잘 살펴보면 자기 마음부터 먼저 열어 보이더라. 친구가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도 용기를 내어 자기의 솔직한 모습과 마음을 먼저 보이더라구. 쉬운 일은 아니지만 친구 사귀는 방법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현명한 아이는 겉모습만 보고 친구를 판단하지 않아. 친구가 되고 싶으면 그 친구를 잘 관찰하는 일이 먼저 일거야. 심사숙고하든 무작정 손 내밀고 친구하자고 청하든 그건 자기가 결정할 일이야. 아무것도 못하고 망설이는 것 보다 뭐라도 해 보려는 책마녀의 부추김이다. 지금 도착할 이야기는 나와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 이야기다.



1. 『뚝뚝우는 밤에』, 키무라 유이치 글 아베 히로시 그림 아이세움

영화로 먼저 만난 친구들도 있겠지. 난 책이 훨씬 좋다고 생각했어. 왜냐? 내가 책마녀니까 책이 더 좋다고 느끼는 거지. 여하튼 늑대와 양은 달라도 너무 다르지. 거기다가 둘은 서로 잡아먹고 먹는 관계라는 거지. 친구? 글썽 둘 사이에 그런 감정은 좀 우습지. 아니 불가능한 거지. 그런데 기부와 메이는 그 경계를 넘어서고 말야. 우리 모두가 안된다는 일을 하는 거야. 왜? 둘은 이미 친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지. ★ 책마녀의 과잉친절 : 『도둑 맞은 토끼』(비룡소), 『식사준비 다됐어요』(베를룩)도 한번 읽어보지 않을래?



2. 『내 짝꿍 에이미』, 스테븐 마이클 킹글 · 그림, 국민서관

헨리는 똑바로 줄도 못 긋고 신발 끈도 잘 못 묶고 자기 이름도 또박또박 못 쓰는 아이야. 그런데 모든 걸 다 잘하는 짝꿍 에이미가 있지 참 부럽다. 그런데 이 굉장한 에이미가 자신의 간간한 면이 걸린다고 한다. 그래서 헨리는 “너 잘했다고 유세하니?” 하면서 소리쳤다(1번). 아니면 “우와 너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걸 보니 완벽하진 않구나” 하며 빈정거렸다(2번). 둘 중에 답이 없다면 네가 답을 생각해 봐. 넌 뭐라고 말했는지? ★ 책마녀의 과잉친절 : 『새 친구』(시공주니어), 『숲 속의 단짝 친구』(한림출판사)도 같이 읽어보기.

나와 비슷한 사람하고는 쉽게 마음이 통하지. 또 한편에선 나와 달라서 끌리는 사람도 있어. “난 저런 것 잘 못하는데 그 친구 참 잘 하네” 이런 맘은 모두 한 번쯤 가져 봤을 거야. 색은 조금 나지만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생기잖아. 하지만 정작 친구로 사귀게 되면 다통도 많아진단다. 나와 다른 부분에서 충돌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지. 그 친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해결되는데 쉽지 않은 일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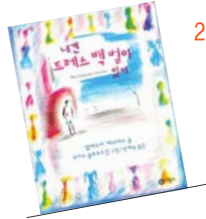
마법 빗자루가 너희들 엉덩이 무게 때문에 힘든거봐. 나도 너무 신나게 날았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고. 잠깐 쉬어자. 하나 둘 셋 넷 둘둘 셋 넷 몸 풀기하고 눈알 굴리기 운동도 하고. 상쾌해졌지? 그럼 다시 동화책 속으로 날아가 보자





1. 『내 탓이 아니야』, 레이프 크라스타인손 글, 딕 스탠베리 그림, 그래픽이키

열 네 명의 아이들이 있네. 그리고 맨 앞에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있는 작은 남자 아이 하나가 있어 분위기가 묘한데 이 반 아이들의 이야기 한 번 들어보자. 학교 쉬는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자기 탓이 아니라네. 다른 아이는 겁이 났고 말할 용기가 없어 그냥 보고만 있었네. 어떤 모자 쓴 아이는 아이들이 모두 그 열 때라기에 자기도 조금밖에 안 때렸네. 뭐야 이 반 아이들이 한 아이를 힘들게 해 놓고는 모두 자기 탓이 아니라고 하네. 정말 이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걸까? 이럴 땐 이 책마녀도 가슴이 답답해지는구나. 으악, 숨막혀.



2. 『내겐 드레스 백 벌이 있어』, 엘레노어 에스테스 글, 루이스 슬로보드킨 그림, 비룡소.

메기는 페기의 단짝 친구야. 페기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자 아이고, 물론 예뻐서. 페기는 정말 못된 아이는 아니었어. 하지만 완다 페트론스키에게는 잔인하게 대했어. 자기 집 옷장에 드레스 백 벌이 있다고 말한 완다에게 매일 같은 질문을 했거든. “완다, 너 드레스 몇 벌이 있어? 모자는 몇 개? 구두는 몇 개 있어?”라고 가난한 집의 완다는 늘 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데 말아야. 사실 메기도 가난한 집이야. 하지만 페기에게 이런 일을 그만 두자고 말할 용기가 없어. 너희들이 이 메기에게 속삭여 줘야 해. 완다를 구해줄 수 있는 건 바로 너의 용기라고 말야. 너무 오래 머뭇거리면 완다의 이름이 더 커질거고 너와 페기도 그 이름을 겪게 될 거라고.



3. 『불균형』, 우오즈미 나오코 지음, 우리교육

따돌림을 당하는 건 아주 비참하다. 이 사실을 절대로 말하고 싶지 않다. 그 애들이 싫증 낼 때까지 내버려 두려고 했다. 하지만 그 애들은 싫증 내지 않았다. 내가 혼자서 참는 동안 유카리 일당 뿐만 아니라 반 여학생 전체가 나를 무시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내가 하루라도 학교에 가지 않으면 이제껏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내 몸이 썩 하며 금이 가서 부서질 것 같았다. 그래서 결석도 할 수 없었다. 부모님은 내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 이제 중학생. 난 살아남기 위한 작전을 짰다. 친구를 사귀지 않는 것이다. 내게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친구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그래 쿨하게 사는 거다. 중학교 2학년까지는 이 원칙이 지켜졌다. 하지만 마음 속엔 언제나 비참했던 5, 6학년 시절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

책마녀 역시 그랬다. 5학년 때 따돌림을 심하게 당했다. 지금도 그 여자 아이 얼굴을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다. 아니 이런 친구를 만나기 전에는 다 나은 병이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병이고 혼자 많이 아픈 병이다. 어쩌면 불치병일 수도 있다. 너희들이 의사가 되어주길 바란다. 나와 같은 친구들을 보듬을 수 있는 따뜻한 친구 의사가 되어 주길 말이다.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친구 책 이야기는 여기서 접기로 하고, 부탁 하나 하자. 나 책마녀도 이번 여행을 통해 친구 사귀는 마음가짐과 행복을 알게 되었단다. 그런데 정작 책마녀와 사귀겠다는 사람이 없으니 좀 섭섭 아니 많이 섭섭. 혹시 너희 엄마나 이모나 고모 또는 그냥 아는 아줌마(아빠, 삼촌, 그냥 아는 아저씨도 사양안 함) 있으면 책마녀 친구로 좀 사귀게 해 줘. 예전에 부끄럽기도 하고 좀 쑥스럽기도 해서 이런 부탁 잘 안했는데 오늘은 용기를 내서 해 본다. 사실 이런 부탁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나 외톨이에요” 소문내는 것 같아 짹짹거든. 여하튼 이 책마녀에게 친구 소개해 준 녀석들에겐 싱싱한 개구리 뒷다리 한 꾸러미 보낼게. 안녕.



내 마음을 알아주는 책 읽기

- 『잘 가라, 내 동생』 발리 슈에즈만 지음, 김성정 옮김, 크레용하우스
- 『그리운 메이 아줌마』 신시아 라일런트 지음, 햇살과나무꾼 옮김, 사계절

선생님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때였어요. 새 학년이 되어 만난 친구지만 집이 가까워 등·학교는 당연히 함께 했고, 학원도 성당도 함께 다녀 서로에게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된 적이 있었 습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는 건 알았지만 너무 갑작스럽긴 했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각자 다른 중학교에 진학한 탓에 예전처럼 매일같이 볼 수 없던 어느 날, 어느 때와 같이 친구 집에 전화를 걸었다니 그 친구의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아마 처음 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부재(不在)를 구체적으로 느낀 적도, 슬퍼하는 누군기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도, 장례식장에 다녀오고 며칠이 지나 다시 학교에 온 친구와 일부러 그렇게 하자고 말을 한 적은 없었지만 '어머니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것은 불문율이 되었습니다. 그 때만 해도 선생님에게 죽음은 무섭고 두렵기만 한 무엇이었으니까요. 누군기를 보고 싶을 때마다 볼 수 없고 재미있는 일을 함께 하고 싶는데 할 수 없는 것도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자꾸 이야기하고 생각나게 하면 친구를 더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 같았어요.

『잘 가라, 내 동생』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10살 난 동생 벤아민을 땅에 묻고 다시 등교한 누나 에스태에게도 친구들은 어색하며 벤아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에스태는 오히려 벤아민이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 함께 없음이 얼마나 서운한지 이야기했다더라면 덜 슬펐을 텐데 말이에요. 이미 죽은 벤아민의 시점에서 서술되는 이 책은 죽음 후의 세상에서 벤아민이 바라보는 가족과 그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생님도 죽음 이후의 세계가 한 번도 이런 모습일거라고 상상해본 적은 없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이를 기억해주지 않으면 모습이 점점 멀어져서 사라진다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많아 돌아가신 할머니의 모습은 흐릿하고 죽은 지 얼마 안 된 벤아민은 매우 선명한 식이죠. 그런데 벤아민은 죽은 지 6년이 지났지만 벤아민 만큼이나 선명한 친구 쿠르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인한 쿠르트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쿠르트의 아버지는 쿠르트가 죽고 나서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만 계시고, 어머니와 형도 다른 사람들은 물론 가족들과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쿠르트의 가족은 슬프지만 함께 벤아민을 기억하고 이야기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벤아민의 가족과는 매우 대비되는 모습이었죠. 점점 희미해져 형체가 사라지는 그 단계가 어쩌면 진정으로 죽고 편안해지는 과정인 것 같았는데, 쿠르트의 가족들은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떠나보내 주지 않기 때문에 쿠르트는 점점 더 지쳐갑니다. 아들의 무덤을 찾은 쿠르트의 아버지가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있을 때 벤아민의 누나인 에스태가 도와준 것을 계기로 쿠르트의 가족은 벤아민의 가족을 알게 되었습니다. 쿠르트가 죽고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아들의 죽음을 이야기하게

된 쿠르트의 부모님은 같은 상처와 슬픔을 지닌 벤아민 부모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이제껏 응어리진 마음을 조금씩 풀어가게 됩니다.

선생님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아주 해가 잘 드는 큰 창 앞에서 이제 막 올라온 새 잎들이 햇살을 한 가득 받으며 반짝이고 있는 모습을 볼 때처럼 마음이 따뜻한, 『그리운 메이 아줌마』에서도 사랑하는 메이 아줌마를 떠나보낸 서머와 오브 아저씨가 상실감을 극복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지만 어릴 때 부모님을 잃은 서머를 데리고 와 키워 준 메이 아줌마는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메이 아줌마를 잊지 못하고 일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오브 아저씨는 사후세계에 가 본 적 있다는 클리타스를 부쩍 찾으며 메이 아줌마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던 중 죽은 이들과 연결할 수 있는 심령교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오브 아저씨는 클리타스와 서머까지 셋이서 교회를 찾아가지만 교회의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지금은 사후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분이 없었습니다. 오브 아저씨는 무척 실망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클리타스가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주의회사당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들렀다 어두워진 밤에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셋이서 함께 아쉽고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그 밤, 서머는 메이 아줌마가 돌아가신 뒤 처음으로 꼭 참았던 울음을 뭉속의 눈물이다 빠져나갈 때까지 터뜨리며 오브 아저씨와 메이 아줌마가 서머를 만나고 함께 지내게 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이 6학년일 때 이 책을 읽었다더라면 친구의 슬픔을 함께 마주 볼 용기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저 아무 말 하지 않는 것 보단 그 친구가 하고 싶은 어머니 얘기를 할 수 있게 들어주고, 울고 싶을 때 참지 말고 울 수 있도록 지켜봐 줄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선생님의 그 친구는 결혼을 하고 여름이 되면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됩니다. 많이 늦었지만, 그 사이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지만 책을 건네고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자신도 어머니가 될 친구에게 더욱 어머니 생각을 하면 아직 마음 한 구석이 저릿하겠지만, 더 이상 아프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했던 아름다운 순간들을 따뜻하게 떠올릴 수 있도록 이야기해 보려고요.

어린이 친구들도 소중한 대상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나요? 사랑하는 대상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건 분명 슬픈 일이지만, 슬픔을 참지 말고 숨기지 말고 울고 이야기하며 충분히 슬퍼한 후 그 사람과 함께하며 행복했던 시간을 따뜻하게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어나라 이야기



박 미 속
 (장유ELC 영어선생님)

'영어몰입교육' 이전에 먼저 몰입 교육해야 할 것은...

2008년 새해의 시작과 함께 새 정부 인수위원회는 '영어몰입교육' 정책으로 온 나라를 한바탕 시끄럽게 했습니다. 마치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영어 몰입교육뿐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말이죠. 증권 시장에서는 교육주가 급등했고 사교육시장에서는 대입관련 내용보다 초·중등 학생의 영어 사교육비가 크게 확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인수위 측에서도 영어몰입교육을 국가정책 차원에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다소 애매한 해명 보도를 내 놓더니,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영어몰입교육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영어몰입교육이 너무나 많은 반대에 부딪히자 당장 총선을 앞둔 시기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발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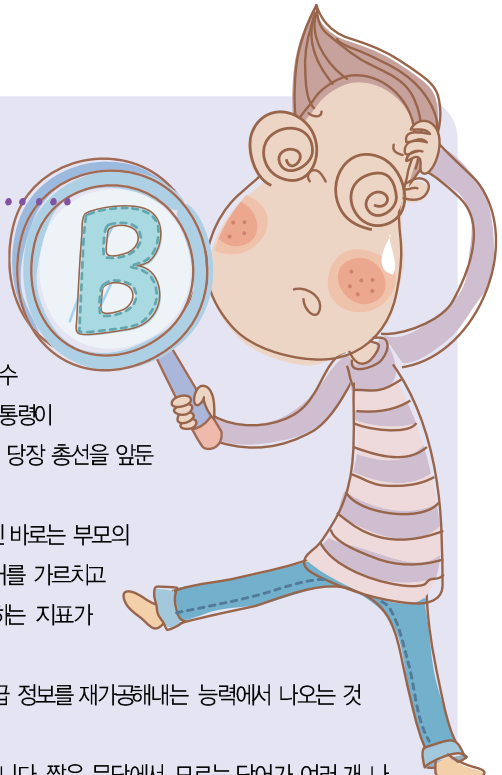
새 정부의 영어교육 정책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교육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여러 조사에서 밝혀진 바와는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영어실력이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큰 차이가 났습니다. 저도 사교육 분야에서 여러 해 동안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입장이지만, 영어 한 과목만 잘해도 대학입시 특별전형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행태처럼 영어가 하나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판단하는 지표가 되는 현실을 볼 때면 더욱 더 기본 목표와 원칙을 올바르게 세워놓지 않고 펼치는 영어교육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영어가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경쟁력이란 모국어로 충분한 상식과 지식을 활용하며 깊이있는 사고를 통해 다량의 고급 정보를 재가공해내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바른 인성과 창의성교육을 우선하지 않는 기본철학이 없는 영어 교육은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수업시간에 몸이 불편한 아이들이 다 같이 공부하는 장면이 나오는 텍스트를 볼 때면 서로 돕고 나누는 것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누기도 합니다. 짧은 문단에서 모르는 단어가 여러 개 나와도 바로 단어 뜻을 찾고 외우기보다는 전후 내용을 유추하여 전체의 내용을 파악한 후 각자가 느낀 바를 자유롭게 이야기해보고 합니다. 저는 저와 함께 영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나눌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스스로 충분히 생각할 줄 알면서도 영어를 잘하는 경쟁력 있는 아이들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글의 주제를 정하고 주변의 몇몇 어머니들께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생각을 물어 보았습니다. 공통적인 생각은 모두가 꼭 그렇게 영어를 잘해야 되는지, 각자 자기분야의 적성과 특기를 살린다면 영어를 못하더라도 상관없지 않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각자 자기분야의 일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엄마들이라서 그렇지 모르지만, 이 대목에서 학부모들이 보다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성과 창의성 교육이 빠져있는 무분별한 영어교육 강화를 쫓지만 말고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부터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쿠바에서는 농사를 생태적으로 잘 짓는 사람이 훨씬 존경을 받는다고 합니다. 미래의 삶에 대한 철학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삶을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을 고민하고 그 기본에 충실한 영어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학나라 이야기



임 현 진
 (즐거움공부방 수학선생님)

1~100까지의 숫자를 모두 더하면 얼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1+2+3+4+5+6+\dots+\dots+\dots+98+99+100=?$

정답이 나왔나요?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고민한 후에 다음 내용을 읽어주세요.

"첫 숫자 1과 끝 숫자 100을 더하면 101이 되고, 두 번째 숫자 2와 99를 더해도 101이 되지요. 3과 98도 101, 4와 97도 101..... 더하면 101은 모두 50번이 나오게 되어서 101×50 으로 5,050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푼 사람은 천재적인 독일의 수학자 가우스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수학에 재능을 보인 가우스는 초등학교 3학년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1에서 100까지의 숫자를 모두 합하면 얼마가 되느냐는 문제를 내자 다른 학생들은 연습장에 $1+2=3$, $3+4=7$, $4+5=9$ 로 덧셈을 하면서 아단들인데 가우스 혼자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선생님 다 했어요" 자기 일에 골몰했던 선생님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가우스가 보여주는 연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습장에는 정확히 5,05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너 이런 문제가 나올 줄 미리 알고 집에서 계산해 왔지? 계산한 흔적이라고는 없잖아?"

"아닌데요, 선생님 방금 계산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할 수 있었니? 선생님이 그렇게 빠리는 못 하는데" 그러자 가우스는 자신이 계산한 방법을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가우스의 계산법을 보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우스의 일화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독창적인 방법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방법을 알고 나면 비슷한 유형의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60까지의 합은 $61 \times 30 = 1,830$, 1~1,000까지의 합은 $1,001 \times 500 = 500,500$ 따라서 1~n까지의 합은 $n(n+1)/2$ 이 되지요.

그렇다면 47~98까지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47+98=145$, 145가 26개 나오지요. 따라서 $145 \times 26 = 3,770$ 이 됩니다.
 26이 어떻게 나왔나구요? 98개의 수에서 46개를 빼면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나오는 '등차수열'의 합공식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지요.

가우스라는 수학자 덕분에 우리는 편리한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요즘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해답자부터 보거나 선생님께 바로바로 도움을 구하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깊이 생각했는데도 잘 안 된다면 도움을 청해야 하겠지만 반드시 먼저 혼자 힘으로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조금 더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창의적인 생각과 실력이 쌓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모두 바쁘거든요. 영어학원, 피아노학원, 태권도학원, 눈술학원 등등... 이렇다보니 학생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던져 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만 급해 정답만 알아내려하지요. 바쁘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 빨리 다른 사람들 보다 먼저 가려고만 합니다. '빨리빨리'가 아니라 조금은 천천히 가더라도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여유를 가진다면 우리 친구들도 가우스처럼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리나라 이야기

"요즘 상헌이에는 뭐 해 먹어?" 하고 옆집언니가 묻더
근요. 저는 이 즈음에는 김장김치를 많이 이용합니다. 맛있게 익
은 김치가 냉장고에 많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창간호 "꽃"의 '요리나
라 이야기'에서도 간편하면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한 '김치
참치 날치알 김밥'을 소개했었죠. 구하기 쉬운 재료로 맛있게 할 수 있
는 요리가 평범한 주부들, 우리 엄마들이 원하는 메뉴일 것 같아
이번에도 김치를 이용한 '김치스파게티'를 소개해볼
합니다.



임 미 연
(참새방앗간 요리사)

◎ 엄마표 사랑 듬뿍 담긴 재료

1. 스파게티면 500g
2. 다진 쇠고기 200g
3. 토마토 페이스트, 토마토 케첩
4. 김치 1/4 포기
5. 당근, 양파, 양송이, 버섯
6. 설탕, 포도주, 진간장 약간

◎ 엄마표 요리순서

1. 김치는 잘게 썰어 듬니다.
2. 당근, 양송이, 양파는 다지듯이 썰어 놓습니다.
3. 기름을 두른 냄비에 쇠고기를 먼저 볶다가 토마토 페이스트를 고기와 같이 볶
은 다음 김치, 당근, 양파, 양송이를 넣고 볶습니다. 그리고 같은 양의 케첩을
냄비에 넣고 토마토 페이스트와 끓입니다.
4. 적당하게 걸쭉해지면 포도주, 설탕, 진간장으로 간을 맞춥니다.
5. 스파게티면을 끓는 물에 약 10분정도 삶아서 찬물에 헹군 후, 다시 프라이팬에
버터나 올리브유를 두르고 볶은 다음 만들어둔 3의 소스를 곁들여 준비하면 됩
니다.

◎ 엄마표 알뜰 팁

남은 스파게티소스는 두부를 노릇하게 구워 얇은 '두부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
도 좋아요.

◎ 엄마표 한마디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에는 싫어하는 재료가 약간씩 들어 있어도 잘 모르
고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김치를 싫어해요", "진짜 이체나 버섯은
안 먹어요"라고 말하며 포기하는 어머니들도 이렇게 조금씩 재료를 활용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균형잡힌 식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엄마표 지혜니까요.
사계절 중 봄에 아이들이 제일 많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봄에는 황사며 꽃
가루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 받기도 합니다. 엄마가 정성으로 준비한
요리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
니다. 어머니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을 전하는 우체통

엄마께

"엄마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거야. 엄마 없으면 나도 못 살아. 그러니까 죽으면 안 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된 이 말은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이어졌다. 정말 내 마음이 그
렇게 간절했으니까!

결혼한 지 9년, 지금 내겐 두 딸이 있다. 사십이 넘어 낳은 늦둥이 막내딸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울타리였던 엄마는 이제 팔순이 되었고, 보청기를 끼고도 잘 못 들으시며, 집에
오는 길도 잃어버리시고 엉뚱한 곳으로 가시곤 한다. 엄마는 우리 집에 한달에 한두 번 오서
서 일주일씩 머물다 가신다. 그때마다 나는 딸이면서도 버거움을 느낀다. 목욕 시켜드리는 것,
산책 시켜드리는 것, 입에 맞는 반찬 해 드리는 것, 때 맞춰 간식에 끼니 챙겨 드리는 것 등
모든 것이 힘겹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해 드리지 못해서 생기는 미안함과 죄송
함이 나를 더 힘겹게 한다. 그래서 그냥 해도 될 말을 짜증을 잔뜩 담아 엄마께 소리를 질러
댄다. 그러다 내 딸들 눈치가 보이면 '할머니는 귀가 잘 안 들려서 큰 소리로 말해야 된다'며
변명을 늘어놓는다. - 내가 늙으면 똑같이 당할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딸들에게 보여줘 보
야 좋을 게 없는 행동임을 알기 때문이다 - 딸이 소리 지르고 짜증을 내도 늙으신 엄마는 아
무런 내색도 않으신다.

나도 안다. 엄마께 진정 필요한 게 무엇인지. 돈도 맛난 음식도,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도란
도란 얘기 나눌 말동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잘 안돼서 '식사 하세요, 약 드세요, 목욕 합
시다' 등 일상적인 말 외엔 하루 종일 TV만 보시게 둔다. 내 딸들에게 책 읽어주기, 문화 강
좌를 듣기 위해 딸을 데리고 다니기, 씻기기, 내게 필요한 책 보기, 집안 일 하기 등등으로 너
무 바빠서. - 어쩔 핑계일 거다 -

사람들은 쉽게 말한다. 노인 문제는 가족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너
도 그만하면 잘 하고 있으니 죄책감 가질 문제는 아니라고. 사회 전체의 책임. 그러나 나와
내 엄마의 문제일 경우에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바로 내 엄마니까! 내 든
든한 울타리였던 엄마! '엄마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거야' 라던 어린 딸의 말을 생각하며 지금
엄마는 또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 딸자식과 오순도순 얘기 나누고 싶어서 안타깝게 나를 쳐다
보시던 그 눈빛이 이 순간에도 눈에 선하다. 더 늦기 전에 좋은 딸이 되어 드려야 할 텐데..
옆에 계시는 댄 짐스러워 하고 오빠 집으로 가시면 후회하며 '다음 번에 오시면 더 잘 해 드려
야지' 다짐한다. 이런 다짐도 벌써 수십 번째 반복되고 있다. 누가 나에게 모든 걸 잘 할 수
있는 비결 좀 가르쳐 줘요..

엄마...

사실은...

나.. 엄마가 오래오래 우리 곁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2008년 3월 21일 엄마의 막내딸 영란 드림



"내 마음을 전하는 우체통"은 장유에 사시는 모든 분들의 편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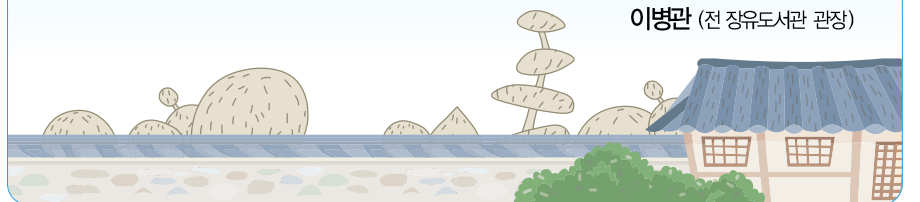
우리 동네 옛 이야기

장유에서 일어난 3·1 독립만세 운동의 시작과 끝!

지금부터 89년 전의 일이니 어쩌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게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장유
에서 일어난 3·1 독립만세 운동이 김해지역 여러 곳의 독립만세 운동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조
직적인 운동이었다는 사실만은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파고다 공원)에서 시작된 3·1 독립운동은 전국으로 번졌는데
이날 시위에 참가한 김중환 의사(義士)가 독립선언문을 옷깃 속에 숨겨 고향에 돌아와 김승태,
이강석, 김용주, 조용우, 조항래, 최현호 등 10여명의 동지와 의논하여 태극기를 만들고 독립선
언서를 등사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여 4월 12일 무계리 장터에서 3,000여명의 군중을 모아
손에 손에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으며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시가 행진을 하
였습니다. 놀란 일본헌병들이 총을 난사하며 군중을 해산시키려고 하였으며 손명조, 김용이, 김
선오 등 세 분이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다치고 김중환, 김승태 등 12
명은 감옥에 끌려가 오랫동안 고생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장유면 내대리 용두산정에는 3·1 독립
운동 기념탑이 세워져 있으며 해마다 이곳에서 삼일절에는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전 장유도서관 관장)



1. 우리 엄마 화나면

집에서 놀다가 컵을 깨뜨렸어요
우리 엄마는 냄비처럼 끓으며
나가 맞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한다.
하지만 엄마 제가
작전 짚건 아니잖아요
엄마 화나면 내 마음이 슬픈데
일부로 한 건 아니잖아요



김만경(주석초 4)

2. 신문에 난 내 얼굴

도서관에 갔다. 어린이 신문에 내 사진이 나왔다.
그런데 싫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놀릴 것 같았다.
조금 지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았다. 멋지게 나왔다고 얘기 하니까
들었다.
다른 친구들은 장난친다고 안 나오고 나만 나왔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도 좋지만 신문에 나오는 것도 좋다.



장재현(능동초 5)

3. 독후 감상화 벽화 타일 제작

3월 22일 토요일 아침 일찍 클레이아크 미술관에 갔다. 그리고
클레이아크에서 타일에 그림을 그렸다. 내가 그린 그림이 새로 짓
는 도서관의 벽에 붙는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혹시
굽다가 그림이 이상하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다. 난 재미있게
있었던 『프레드릭』 책의 한 장면을 그렸다. 잘 그리지 못할까봐 손
이 떨리기도 했다. 새로 지어진 도서관에 붙어 있는 내 그림을 빨
리 보고 싶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세은(부곡초 1)

4. 이거 머시고!

이모가 오랜만에 우리집에 놀러왔다. 그런데 이모는 영상통화가 되는
핸드폰으로 휴대폰이 바뀌었다고 했다. 어라! 나도 영상통화 되는데...
나는 바로 이모한테 영상통화를 걸었다. “빠리리리, 빠리리리..” 이모가
받았다. “이거 머시고!” 나는 너무 궁금해 이모 옆으로 가서 휴대폰을 보
았다. 아차! “주연아 나가 전화 했는데 왜 ‘엄마’ 라고 되어 있노?” 이모
가 할머니께 휴대폰을 선물했는데 내가 너무 갖고 싶어 하니까 “이모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이모 또 빠끼
니까 ..” 하시면서 주신 것이다. 근데 난 영상통화에 깜빡 잊었던 것이다. 엄마가 수습을 해 주셨다. “엄마 꺼
잠깐 빌렸다 아이가” 우리 가족은 그때 너무 놀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모가 일어 차려서 빠지면 어떻하지..
어른들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더니 정말 그런가보다.



신주연(수남초 4)

5. 잘난 척쟁이

여러분은 한 물건을 위해 우정을 배신하거나 믿음을 저 버린 적은
있으십니까?

지금부터는 제이크의 고달프지만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제이크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너무나 좋아해서 컴퓨터에 대한 일
은 거의 다 해내고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제이크는 잘난 척하는
아이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학교에는 잘난 척 하는 아이들이 많았지요. 마
침내 제이크가 다니던 학교에서 경시대회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 경시대회 논설을 할 때는 아이들이 기분이 다
운 되어 있었지만 마지막 부분인 1등을 하면 최신형 컴퓨터를 준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했습니다. 논설을 다 듣
고 아이들은 교실에 들어가서 선생님의 말을 차근차근 들었습니다.



장성균(주석초 6)

그 이유는 뭐가요? 바로 컴퓨터를 받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2명이랑도 나갈 수는 있지만 1등을 해도 선물
은 하나 밖에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이크는 제일 친한 친구의 부탁도 들어 주지 않고 오히려 선물에만 집
착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정의 배신감이겠죠. 하지만 친구가 그리워진 제이크는 마음을 바꿔 친구 율리와
다시 같이 하기로 마음먹은 뒤 신청을 다시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생각 했습니다. 마침내 시험 날 사이좋은 친
구는 기대감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라면 자신있는 반의 친구가 1등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서로 많은 정보를 얻었고 새로운 우정의 고마움을 알게 된 두 아이의 마음이 너무 새로운
것 같아요. 앞으로 새로운 도전을 지푸 헤가며 저도 꿈을 키워야 되겠죠.

한 가지 한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재미있는 아이는 하루에 책을 100권을 읽는다고 하면 흥미가 없는 아이는
아무리 100권을 읽고 싶어도 못 읽는 듯이 그것을 좋아해야 그 일이 쉽게 넘어가요. 모든지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마음을 가지면 잘 할 수 있게 된답니다.

6.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요즘 먹거리로 장난치는 사창
들이 너무 못 되어서 쓴다. 옛날 국민 과자에서부터 지금 통조림까지의 역
사를 알아보자.

국민 과자!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과자 영양갱이 나올 때 생겼다. 과자
붐이 본격적인 것은 70년대이다. 7년 해태제과의 부라보코, 새우깡, 뽕뽕
이 등 여러 가지가 출시되면서 초코파이도 나왔다. 초코파이도 발전하고
국민들의 사랑으로 한자 뜻 정(情)이 붙으면서 아낌없이 사갔다.



문현진(주석초 6)

2005년까지만 해도 인기를 끈 우리나라 식품이 2006년에는 바뀌었다. 현재 논란인 이물질사고가 이번만이
아니다. 2006년에도 참치통조림에 커트칼이 들어 간 적이 있다고 한다. 2006년에 일어난 일이 지금 2008년
에 밝혀지는가 하면, 일정한 만큼의 돈과 양식을 주고 입을 다 물게 했다고 한다. 이런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
다. 2년이 730일, 또 17,520시간 그리고 1,051,200초가 아무 말 없이 지나버렸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
은 칸베이어벨트를 뜯어내는 작업을 하다 조각난 것이 무경이 고정 된 통조림 참치캔 살 속에 들어갔다고
한다. 먹거리를 속이면 사업을 접게 하고 벌금과 형벌로 다뤄야 한다. 생쥐 머리 새우깡 외에도 옥수수 가루와
즉석밥에서 곰팡이로 보이는 이물질이 또 검출되었다고 하니 이거 무슨 식품을 믿어야 하나? 그리고 저번에는
웰빙 식품 녹차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이물질 사고가 어떻게 그 간단한 라면
세 박스나 동원 참치캔세트 같은 일정한 돈으로 갚는다고 할 수 있나. 황당하다. 이러다간 이물질사고가 늘어
나면서 제2의 피해자와 사건이 또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나의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이물질을 먹고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기 전에 회사의 건물 시스템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가동하여야 한다. 이물질사고가 나서 꼭 질
병까지 알지 않으면 미안하단 표시로 일정한 양식과 돈을 주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의 대처법을 반성하여야
한다. 자신의 회사가 망하는 것보다 국민의 의식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의식주 중 한 개씩 빠져버리
면 의와 주가 없으면 자고 입을 못이 없어 죽게 되고 식이므로 굶어 죽게 된다.

그래서 나의 마지막 결론으로는 자신의 회사가 철거되거나 망하게 되어도 자신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면서 우리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한다.

신나는 글나라
놀이터



7. 내가 알고 있는 따돌림

오늘의 책 예전 책이랑 주제가 똑같았다.

『이슬이슬 삼총사, 『내겐 드레스 백별이 있어』, 그리고 오늘 읽은 책 『우리들만의 전쟁』. 책 3권의 주제가 왕따에 대한 얘기들 이었다.

왕따와 친구를 해주는 친절함 친구들, 왕따의 말을 안 믿었지만 진짜인 것, 그리고 왕따를 당한 애들끼리 작전을 꾸면 왕따를 시킨 애들을 괴롭히는 것, 이런 일들은 아주 재미있었다. 하지만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마음이 불안하다.

4학년 때 같은 반 친구의 경우였다. 그 애의 성격은 너무나도 싸가지가 없었다. 어느 날 그날이 왔다. 그 애는 아침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 물론 나도 그 애를 왕따시켰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선생님이 들어와 우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숨을 죽이고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한 명의 아이가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우리는 뜨끔!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졸이고 있었다. 선생님은 한 명씩 데리고 나가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해봐라”고 말씀하셨다. 아이들과 나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홍상수에게 사과를 하고 침묵을 했다. 만약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더 일어난다면 난 그 애를 감싸줄 것이다.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노력은 해보아겠다.



초마혜(주석초 6)

8. 야단맞으면

엄마는 뭐 잘한 거 있나?

기분 나쁘게

어린이는 자유로워야 되는데.

손바닥 맞을 때는 몸부림치며 반항하고 싶다.

엄마는 아마도 나처럼 참지도 못할건데.



박혜연(능동초 4)

9. 난 아주 특별해

나는 공부하는 잘 못하지만 쌍절봉이랑 붓을 잘한다는 것을 오늘 느꼈다.

나는 너무 특별하고 나는 한 명 뿐이라는 걸 알았다. 난 너무 특별하다.



심혜연(신안초 3)

10. 야단맞으면

엄마한테 야단맞으면

자옥에 온 것 같다.

그리고 야단칠 때 큰소리로

“야, 너 맞을 줄 알아” 라고 한다.

또 어떤 땐 짜증이 난다.

그 분노로 동생과 딱지를 치면 확실히 잘 따진다.



박수희(계동초 4)

11. 『아주 특별한 선물』을 읽고

아주 특별한 선물은 무엇일까? 커다란 공인형? 비싼 가방? 난 다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별한 선물은 남을 위한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아무 이유 없이 선물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만 낭비할 뿐이다. 편지로서 내 마음을 표현해 남을 기쁘게 하거나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아주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읽은 책 『아주 특별한 선물』(필벗, 길벗 어린이)에서는 롬이랑 할아버지가 옛 기억을 떠올려 아내에게 줄 특별한 선물을 생각해 특별한 선물을 해 준다. 나도 롬 할아버지처럼 남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 적이 있다. 엄마 생신 때 예림이와 나는 엄마 일을 도와 드리려고 설거지를 했다. 엄마는 무척 기뻐 하셨다. 그릇을 몇 개나 깨뜨렸는데도.. 또 아빠 생신 때 이름 안 밝히고 내가 직접 쓴 편지를 아빠 방에 넣었다. 몰래 했는데도 아빠는 나인 줄 알았는지 날 보고 피식 웃으셨다. 원래 이런 것 알아채면 기분이 짹짹해야 하는데 기분이 엄청 좋았다. 이와 같이 마음이 담긴 선물이 주는 감동이 크다 꼭 명심해야겠다.

요즘 우리끼리 대통령 잘 뽑힌거니 워너비며 시끄럽다. 또 기쁨우출하고가 일어난 지 좀 지났는데 관촬아 켜니 어쩔너하며 시끄럽다. 난 서해바다에 한번 가서 봉사하고 싶다. 하지만 아빠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걸리적거린다며 가지 말라고 한다. 이때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희망의 편지를 써 주는 것이다.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나는 커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이 되어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 주어 큰 웃음이 넘쳐흐르는 우리나라를 만들도록 할 것이다.



설예연(주석초 6)

12. 내가 읽은 『열두살 어니의 좌충우돌 경영자수업』

내가 읽은 어니의 경제학은 제목 그대로 경제 이야기다.

주인공 어니는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늑은 개 러니와 함께 산다. 하지만 사업에 너무 집착했던 어니는 학교에서 치즈버거를 파는 것등 안 될 행동을 하고 만다. 화가 난 아버지는 다시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만약 친구들로 인해 돈을 받는 사업이라면 외출금지라고 말하셨다. 하지만 어니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생각해본다. 바로 죽은 애완동물 장례식이다.

아버지는 어니의 어머니에 들어간 장례식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빚을 아직 갚지 못했는데, 늑은 개 러니의 장례식도 치르자니 일을 혼자하는 어니의 아버지에게는 너무 벅찬 일일 것이다. 그래서 자신만의 동물 장례식 사업을 아버지 몰래 시작한 것이다.

어니는 먼저 친구들을 구했다. 관을 만들 친구, 구멍을 팔 친구 - 관을 넣어하니깐 - 이렇게 구했다. 그리고 남은 건 고객을 구하는 일이라고 어니는 생각했다. 그래서 고양이 아주머니 집에 갔는데, 어니는 그곳에서 아주머니한테 아이디어를 받았다. 바로 장례식에 어울 줄 수 있는 친구이다. 어니는 사업동료(?가 추천한 여자아이한테 갔더니 어니가 생각한 안전한 아이와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6주후에 월급에 대해 의논한다는 간단명료한 제인에 어니는 받아들였다.

어니는 모든 것이 잘 처리되었다. 6주 동안만.. 하지만 6주가 지난 뒤 여자아이는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약속한 월급보다 더 올려달라는 것이다. 어니는 의논하자고만 했지 올려준다는 말은 안했다고 화를 냈다. 어니는 평소엔 정다운 친구지만 사업에서는 냉정하고 철저하다) 그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여자아이는 그만 두었고, 따로 사업을 한다고 했다.

마지막, 어니와 여자아이는 늑은 개 러니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를 때, 화해를 하였다.

난 이 책에 대하여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업을 싫어할까? 어니가 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면 조금씩 더 도와주어야하는 것이 더 올바른데 생각이 든다. 난 어니가 아버지의 굳은 고집에도 휘말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한 게 너무 감동적이었다. 보통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금방 포기하고 사업에 대한 관심을 버렸을 것 같다. 내가 인터뷰를 하면 대개 이렇게 말하겠지 “어쩔 수 없잖아? 부모님의 말씀인데.”하고, 어니의 아버지는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좀 관심을 가졌어야한다.



안루비(대성초 5)

13. 가을이 되면

가을이 되면
새들이 남쪽으로 날아가고,
고추잠자리들이 날아다니지요.

코스모스들은 활짝 피고
나무는 옷을 갈아입지요.

새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귀뚜라미 소리는 멋지게 어우러집니다.

그래도 가을은
좀 쓸쓸한가 봅니다.



오나현(주석초 2)

14. 병주고 약주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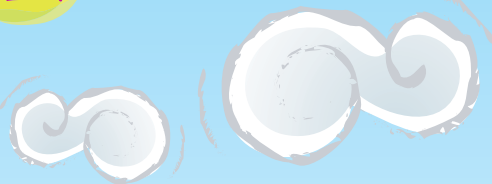
나는 태안반도 사는 갈매기지요
어제는 배가 고파
먹이를 찾으려 해도
먹이는 보이지 않고
검은 기름만 등등 떠다니네
한달 전 까지만해도
푸르디 푸른 낙원이었지만
지금은 엉망이지요
나는 검은 기름을 먹고
배가 아파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태안 사람들에게 구조 되었지요
정말 병주고 약주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름을 퍼내니
곧 다시 푸른 바다가 되었지요



박도현(월산초 5)

“신나는 글나라 놀이터는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경유도서관 홈페이지 ‘꽃꽃’ 방에 들려 자유롭게 글을 남겨주세요. 2호 ‘꽃꽃’에서는 유독 주석초등학교 친구들의 참여가 많았는데요. 다음 호 ‘꽃꽃’에서는 다른 학교 친구들도 많이 많이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그림책

★ 색칠해 보아요 ★



내 짝꿍 에이미_ 스티븐 마이클 킹 글·그림, 국민서관



책마녀의 괴짜 독서 골든벨



1. 『외톨이 사자는 친구가 없대요』에 나오는 동물들의 특징을 정리해보고 나의 특징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2. 『행복한 의자 나무』가 거인 에이트에게 처음으로 칭찬을 들은 뒤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알지? 그러면 내가 칭찬 받을 땐 어떤 느낌인지 생각해 보. 잘 모르겠으면 칭찬 받을 일을 한 가지 해서 칭찬을 받아보자.
3. 『폭풍우 치는 밤에』의 기부와 메이는 깜깜한 오두막에서 만난다 그리고 서로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닮은 점이 많고 잘 맞다고 생각하지. 늑대와 염소가 닮을 리 없는데 왜 서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 우리 옛이야기 중에 같은 상황을 각각 다르게 해석해서 중국의 사신을 이기는 이야기가 있어. 찾아보고 엄마한테 웃긴 목소리로 들려 주기 (떡보 흉내 낼 때)
4. 내 짝꿍 자랑 한 번 해봐. 이름은 뭐고 무엇을 잘하며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맘에 드는 점을 자세하게 말해 보. 그리고 예쁜 카드에 그 내용을 적어 짝꿍 서랍이나 가방에 슬쩍 넣어 주자. 행복이 가슴 가득 부풀어 오르는 기분을 느낄 걸. (엄마는 아빠에게, 아빠는 엄마에게 해보기)
5. “내 탓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아이들에게 “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어” 하고 말하기. 그리고 “넌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탓도 되는 거야” 라고 말하자. “난 이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마법이 통한 거니까 안심
6. 완다의 드레스 백 발을 알게 된 완다와 페기. 매디는 완다를 놀리는 일이 잘못된걸 알면서도 완다를 이해하거나 페기를 말리지 못했어 사실 우리는 평소에 페기보다 매기에 더 가깝지 이런 매기와 내가 닮았던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자
7. 가끔은 나에게 편지를 써 보자. 아닌 척 감추고 있지 말고 누군가 내 속마음 훑쳐볼까 꿈꿨다 말하고, 안 아픈 척, 안 외로운 척, 강한 척, 용감한 척 하느라 힘든 나에게 편지 한 통 보내주자.



도서관에 놀러와

● 개학 후, 1학기 정규프로그램 운영

- <가야 문화를 찾아서> : 초등학교 5·6학년, 둘째 · 넷째 화요일, 오후 4시~6시, 동화사랑방
- <방과 후 도서관 학교> : 초등학교 3학년, 매 주 금요일 오후 4시~6시, 동화사랑방
- <어린이 독서회> : 초등학교 6학년, 매 달 둘째 · 넷째 토요일, 오전 10시~12시, 동화사랑방
- <청소년 독서회> : 중학교 1·2학년, 매 달 첫째 · 셋째 토요일, 오후 2시~4시, 3층 동화사랑방
- <북스타트데이> : 매 주 목요일 10시 30분~ 11시 30분 유아실
- <일일 도서관 체험교실> : 초등부· 유아부 각각 어린이실 · 유아실 신청 상담 후 운영

● 행사

- 일기책 원화 프린팅 판넬 전시회(3/26~4/8, 지하층 전시실)
: 『소년왕』 포함 10개 작품 총 50점 원화프린팅 판넬 전시
- 문승연 선생님 초청 강연회(4/12, 3층 시청각실)
: 『쿵쾅쾅 소리는 그림, 김환기』 의 저자 문승연 선생님 강연 및 추상화 그려보기
- 그림책 원화 전시회(4/12~4/25, 지하 1층 전시실)
: 『우리는 별거숭이』 포함 14개 작품 총 29점 원화 판넬 전시
- 아빠와 함께하는 북스타트(4/13, 건강실) : 아빠와 함께하는 유아 책놀이 및 손유희 등 프로그램 시연
- 북스타트 부모교육(4/14, 유아실) : '그림책 읽어주기의 재발견' 이라는 주제 강연
- 야외 그림책 전시(4/12~4/13, 장유도서관 분수대 앞)
: 좋은 그림책 전시 및 책 읽어주기, 간단한 독후활동



“꽃” 3호는 2008년 9월 독서의달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